

## 녹지동봉황문 가라오리

‘가라오리(당나라에서 전래된 직조법으로 만들어진 직물)’라고 불리는 이 화려한 비단 기모노는 일본 전통 가면극인 노에서 여성 역할을 맡은 배우가 착용하는 의상입니다. 가라오리가 가장 활발하게 제작된 시기는 에도 시대(1603~1867)인데, 이 기모노는 17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.

가라오리는 우키오리를 여러 번 사용한 노 의상 자체와 그 의상을 제작하는 직물 둘 다를 지칭합니다. 우키오리란 바탕 실의 씨실 위에 추가로 장식용 씨실을 떠 보이게 짜 넣어 자수와 비슷한 무늬를 완성하는 직조 기법입니다.

후대의 가라오리에는 문양에 금사가 풍부하게 사용된 경우가 많지만, 이 의상은 모모야마 문화 시대(1573-1615) 특유의 차분한 작품으로, 비단 지오리의 직물 바탕색은 짙은 녹색이 사용되었고 문양에는 금사가 아닌 여러 가지 색실이 사용되었습니다. 또한 문양이 옷의 상부에서 하부에 걸쳐 반전되며 이어져 있는 것도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. 예를 들어 소매부분의 봉황 문양은 위쪽은 왼쪽을 향하고 있고, 그 아래쪽은 오른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.

노는 철저히 양식화된 전통예능으로 의상의 문양이 배역의 특성을 나타냅니다. 예를 들어 붉은 바탕색 가라오리 의상은 젊은 여성을 나타냅니다. 이 기모노의 바탕색은 짙은 녹색인데, 이는 중·장년층의 역할을 나타냅니다. 또, 봉황이나 오동나무 같은 고귀한 문양은 보통 권위 있는 인물을 상징합니다.

이 가라오리 의상은 1974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